

釜山港 世界3位 컨테이너항만
跳躍紀念 特別討論會

致 辭



海洋水產部長官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손태인 의원님, 허태열 의원님과
안상영 부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기쁘고 축하할 일은 아무리 많아도 과함이 없나 봅니다.
만년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던 부산항이 재작년 세계 4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해 드디어 세계 3위로 도약하였다는
사실은 항도 부산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높여주는
쾌거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화물 유치와 처리에 열과 성을 다해오신 항만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부산항이 세계 3위의 항만으로 도약한 것을 기념하는
오늘 「부산항 선진화를 위한 특별토론회」는 단순히 지난
성취를 되돌아 보며 축하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큰 번영을 다짐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 부산은 전국 6대도시중 실업률이 가장 높고,
GDP에서 차지하는 경제비중은 지난 '85년 이후 한번도
상승하지 못한 채 '99년에는 6.3%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부산의 미래를 전망하며 늘 희망을 얘기해 왔고, 그 근거로서 부산의 바다를 들었습니다. 천혜의 항만여건과 아름다운 해양경관은 어느 해양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부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2020년 중국의 총체적 경제력이 미국을 앞지르고,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때 부산은 사람과 물건이 몰려오는 세계적인 물류·관광도시로 발돋움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전망이 아무런 노력없이 저절로 이루어 지기는 만무한 일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영예로운 위상을 유지하며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항만SOC를 확충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경쟁항만들은 국경없는 신무역시대를 맞아 국제 물류중심기지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카오승항은 배후지 150만평에 글로벌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IBM, UPS, 크라이슬러와 같은 세계적 기업의

물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중국의 상하이항도 2010년까지 52개 선석을 건설하여 연간 1,400만TEU를 처리한다는 계획아래 항만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조만간 1만TEU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이 주력선대로 등장할 것에 대비하여 요코하마항에 1만2천 TEU급의 메가 갠트릭레인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쟁항만의 투자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우리의 대응자세는 실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항만투자는 당초 계획의 32%에 불과하였고, 화물유치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금년내로 국가항만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재정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민자 및 외자 유치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산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항만공사 설립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최되는 특별토론회가 참석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속에 부산항을 세계 제일의 항만으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담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오늘 제시되는 발전방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부산항은 침체에 빠진 부산경제를 다시 세우는 반석
역할을 하리라 확신하며 내빈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조남일 이사장님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
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2월 23일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